완도 여서도 돌담길 사라질 위기 넘겼다

전남도는 허물어질 뻔했던 완도 여도서의 국보급 돌담길이 주민들의 양보로 살아남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거센 바닷바람 막기위해 주민들 직접 쌓아
최근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으로 파손 위기
주민협의 거쳐 확장 아닌 노면 정비로 전환

'바람의 섬' 완도 여서도의 국보급 돌담길이 사라질 위기를 넘겼다.

완도에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섬으로 알려진 여서도에는 옛 부터 돌담길이 유명하다.

거센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돌담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오랜 세월을 섬 주민과 함께 했던 돌담길이 최근 허물어질뻔 했으나 주민들의 통큰 결단으로 살아남게 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서도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돌담을 주민협의를 통해 보존키로 했다.

당초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돌담 철거 후 길이 350m, 너비 3m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양보로 확장이 아닌 노면 정비 위주로 전환, 돌담은 최대한 보존키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돌담길 대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원했다.

구불구불한 돌담길 폭이 1.0~1.5m로 좁은 데다 구불구불해 통행하기 불편했기때문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감안됐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2015년 도서개발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이 결정됐고 공사 구간에는 돌담길 220m도 포함됐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을 안팎에서 돌담길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명절 때 찾아온 귀성객과 전국에 있는 향우회도 함께했다.

한 해 동안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난달 말 마침내 돌담길을 보존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돌담길 중 위험한 구간 3~4곳을 다시 쌓고 길바닥을 평평하게 골라 짐수레나 삼륜차가 다니도록 요구했다. 이 의견은 설계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8월 말까지 현존하는 돌담의 가치와 규모, 노후 위험 구간 등을 조사해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설계가 보완되면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3월께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돌담길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주민들은 여서도의 미래를 위해 돌담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배부름 현상으로 붕괴 위험한 돌담 구간은 정비할 방침이다"면서 "공사에 앞서 전문가·전남도·완도군·주민이 참여한 공사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무안군의회, 노인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 분회장, 노인대학장 등 노인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회는 이 자리에서 2017년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오는 8월에 열리는 무안연꽃축제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한편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권익 향상 그리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읍면 분회장님들은 "9개 읍·면 중 몽탄면과 망운면에만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다"며"노인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오고 계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오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발우공양으로 어린이 식사예절 교육

여수시, 지난달 어린이집 아동 470여명 흥국사서 체험

여수시가 스님들의 식사법인 발우공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사예절을 교육했다.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6월 한 달간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아동 470여명에게 흥국사 발우공양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들은 스님들이 발우에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식사하는 동안 소리내지 않기, 편식하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식사예절을 배웠다. 시는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20곳을 대상으로 발우공양 체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사예절을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대덕읍, 야생들개 포획 설치

출몰 잦은 월정 마을 · 평촌 마을에…긴급 출동반도 편성

장흥군은 야생 들개 출몰이 잦은 대덕읍 월정 마을과 평촌 마을에 유기동물 포획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주인에게 버려져 야생화 된 들개들이 마을 인근에 출현함에 따라 군은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취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덕읍사무소(☎ 860-0713)는 야생들개 출몰 신고체계를 갖추고 긴급 출동반을 편성했다.

긴급 출동반은 안전사고와 2차 추가 감염을 예방 동물보호법에 의거 생포하거나 유기동물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할 방침이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 문화의 뿌리를 찾아…전통인문학강좌 '호응'

18일 용산다목적회관서 제3강 도자유적의 재조명 개최

장흥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장흥전통인문학강좌'가 지역민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문화원(원장 이금호)은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장흥전통인문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열린 제1강은 회진면에서 '회령포 문화축제 방향과 이순신 조선 수군 재건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행사에는 김성 군수와 지역의 문화발전 및 융성에 관심이 있는 각계의 군민들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前 서울 중구청장)는 회령진성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6월 30일 장동면에서는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강좌 개최 당시 장동면장으로 재임 중이던 강신대 장동면장이 강사로 나서, 장동 지역이 구석기 유적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장흥문화원은 7월 18일 용산다목적회관에서 제3강을 기약하고 있다.

제3강은 '장흥 도자유적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설 계획이다.

장흥=김종민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